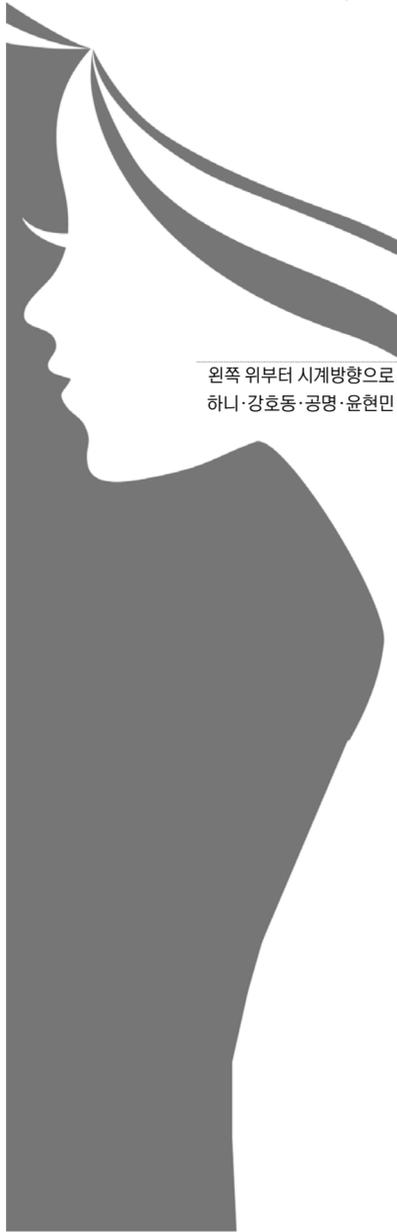


“이미지 변신 최고” 연예계 탈색의 미학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하니·강호동·공명·윤현민



강호동·김혜수·EXID 하니 등 도전 고통스럽지만 강렬한 이미지 위해 변신 대중의 인기·공약 위해 자기 희생 감수

“상처난 데 소금 뿌리는 것 같다” (강호동)
 “두피에서 피가 났어요.” (EXID 하니)
 “머리카락이 다 끊어졌어요.” (김혜수)

스타들이 이런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도전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머리카락 탈색이다.

이미지 변신이 필요한 스타들에게 헤어스타일 변화는 늘 동반되는데, 그중 색깔의 변화가 가장 큰 효과를 낸다. 밖으로는 강렬한 인상을 주고, 안으로는 심기일전을 이끌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스타들이 잇따라 화끈한 이미지 변신을 꾀하거나 다부진 각오를 다지기 위해 탈색에 도전해 눈길을 끈다.

오는 9일 개봉하는 영화 ‘미옥’의 김혜수는 오른쪽 옆머리를 반삭발하고 반대쪽은 턱까지 기른 헤어스타일에 백발의 탈색까지 가미했다. 강렬하고 차가운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촬영하는 3주 동안 몇 차례나 탈색하느라 두피와 얼굴 가장자리에 화상을 입었다는 그는 “영화에서 자세히 보시면 머리가 다 끊어져 있다”라면서도 “두피가 무지하게 손상된 다던데 나는 괜찮았다. 그런 것도 배우라서 해보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지난 7일 내번째 미니앨범 ‘폴문’ 쇼케이스를 개최한 그룹 이엑스아이디(EXID)의 하니도 백발로 탈색한 머리를 선보였다.

하나는 “이번 앨범에 임하는 각오를 머리카락으로 표현했다”며 “한 번도 밝은색의 머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엔 탈색을 다섯 번이나 했다. 나중에는 두피에 피가 나더라”고 말했다.

염색은 머리카락에 색을 입히는 것이고, 탈색은 머리카락에서 색을 빼는 것이다. 한국인의 모발에서는 염색을 최대한 밝게 해도 밝은 갈색이나 어두운 금발이 한계지만, 탈색을 하면 백발까지도 가능하다.

강호동은 JTBC ‘아는 형님’ 시청률 5% 달성 공약으로 지난 4월 탈색에 도전했다. 씨름 천하장사 출신인 그는 시청률이 5%를 넘을 경우 청·홍 살바처럼 머리를 반반으로 염색하겠다고 공약했었고 이를 행동으로 옮겼다.

배우 윤현민은 지난 6월 MBC TV ‘나혼자 산다’에서 탈색에 도전했다. 그는 헤어디자이너에게 “과격적인 머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디자이너는 “과격색 머리를 하려면 탈색을 해야 하는데 머리가 다 녹는다”고 경고했지만, 윤현민은 탈색에 도전했다. 이 과정에서 머리에 가해지는 뜨거운 열과 따가움에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다.

탈색으로 최근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준 배우는 조성하였다. OCN ‘구해줘’에서 사이비 교주를 연기했던 그는 백발로 변신하기 위해 10여차례 탈색을 했다.

조성하는 “‘구해줘’ 대본을 처음 봤을 때 ‘나’ 감정 머리는 재미가 없겠다 생각했다. 그러다 세월호 참사와 연관된 (고)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예배 동영상 보고 이미지를 차용했다”고 밝혔다.

배우 공명은 지난 8월 끝난 tvN ‘하백의 신부’를 하면서 탈색 머리를 선보였다. 천국의 신 비련을 맡아 신비로운 이미지를 선보이기 위해서였는데, 효과를 톡톡히 봤다.

그는 당시 “어려 차례 염색을 하느라 머리카락이 많이 상했다”며 “드라마가 끝나면 머리카락이 상해서 삭발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벼랑 끝 몰린 자들의 처절한 몸부림 “이 땅의 乙들에게 힘 드리고 싶어”

영화 ‘7호실’ 신하균·도경수 호흡…15일 개봉

지난해 국내 자영업자는 약 600만 명. 해마다 많은 사람이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출혈경쟁과 경기불황에 내몰려 10명 중 9명은 정당한 지 5년도 안 돼 간판을 떼는 게 우리 사회 현실이다.

영화 ‘7호실’은 대박을 꿈꾸며 가게를 차렸다가 순식간에 벼랑 끝에 몰리는 국내 자영업자의 모습을 볼록렌즈처럼 비춘다.

다소 과장되긴 했지만, 아픈 현실을 유머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한바탕 웃고 나면 헛헛함이 남는다.

큰 줄기는 서울의 망해가는 DVD방 사장 두식(신하균 분)이 재값을 받고 DVD방을 넘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우연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내용이다.

두식은 자영업자의 현실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DVD방으로 돈을 벌었다’는 말을 우연히 듣고 신혼집 전세금까지 털어 던져 DVD방을 차렸다.

그러나 그곳 상권은 이미 예전 같지 않다. 하루 손님은 고작 한두 팀뿐, 야간에 대리운전까지 하며 DVD방을 꾸러가지만, 월세마저 몇 달째 밀려 보증금만 계속 까먹는 처지가 된다. 하루라도 빨리 새 인수자를 찾아 권리금 1억원을 받고 가게를 넘기는 것이 목표다.

결국 기존 ‘알바생’ 태정(도경수) 이외에 중국교포 청년을 한명 더 고용해 DVD방을 그럴듯하게 꾸미고, 마침내 매수자의 향자가 나타난다. 계약을 며칠 앞둔 어느 날 DVD방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고, 두식은 시체를 DVD방 7호실에 감춘다.

그러다 7호실이 갑자기 봉쇄된 것을 알고, 당황한다. 그 뒤부터는 7호실 방문을 열리는 태정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봉쇄하려는 두식의 밀고 당기기 싸움이 벌어진다.

영화는 한정된 공간에 소수의 인물만 등장하지만, 100분의 러닝타임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극중 등장인물들은 모두 ‘을’이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조물주 위의 건물주’라는 세간의 우스갯소리처럼, 얼굴 없이 대사 속에만 등장하는 건물주다. 건물주는 수시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두식을 위협한다. 건물주 앞에서는 DVD방 ‘사장님’도 그저 세입자일 뿐이다.

도경수는 7일 열린 시사회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이야기에 끌렸고, 이 캐릭터를 통해 힘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장편 데뷔작 ‘10분’(2013)으로 베를린 영화제 포럼 부문에 초청되는 등 호평을 받은 이용승 감독의 신작이다. 15일 개봉.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마이 리틀 베이비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다큐멘터리 3일	50 도둑놈, 도둑님(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국제상 수상작 시리즈 넥스트 휴먼(재)	50 내 남자의 비밀 (재)		00 애니캐리리 30 교황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토크 보형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농부라비	50 생생정보 스페셜	20 병원선 몰아보기	55 닥터 365
2	20 반지의 비밀일기 50 팔도밤산 스페셜(재)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똑? 똑! 키즈스쿨	00 뉴스브리핑
3	00 가요무대(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00 보글야 사랑해 40 헬로키키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4	00 4시 뉴스집중		00 양코르 MBC 다큐프라임 (도시, 진화를 꿈꾸다)	00 여행배틀 로그인 코리아 (재)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5 숨터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토크쇼 15 티빙매카드 R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00 MBC 이브닝 뉴스 40 해피타임 명작극장 스페셜 (신인사연)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나눔의 행복, 기부 55 UHD 한식	30 2TV 생생정보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정글의 법칙(재)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밤상	50 내 남자의 비밀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골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닥터 하우스	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45 세상기록 48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40 KBS 스페셜 시화호 30년 특별기획 물의 제국			
10	35 KBS 뉴스라인	00 매드독	00 병원선 몰아보기	00 당신이 잠든 사이에
11	05 청소년드라마 <안단테>	10 고백부부(재)	10 MBC 스페셜 (덕후의 시대)	10 자기야-백년손님
12	00 미래기획 2030 50 인간극장 스페셜	15 세상의 모든 다큐	10 TV예술무대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영화가 좋다>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버섯김수프와 버섯달걀전>	15:00 로봇 발명왕 러스티(재) 15:30 호기심 나라 오기도 15:4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0:50 세계테마기행 <살을 노래하면 인도네시아 4부 화산의 두 얼굴>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똑막맨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덩동영 유치원 1~2 08:30 공룡탐험대 고고다이노(재) 08:45 수확이 아홉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30 플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1:20 세계테마기행(재) <내 인생에 꼭 한번은 아이슬란드 불위의 시간을 살다 마바튼>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우리 동네 마당발, 교복 할매> 12:40 지식채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 길 위의 인생 (에르덴의 친구) 14:30 레인보우 루비	16:15 주사위 요정 큐비주 16:30 수확이 아홉(재) 16:45 덩동영 유치원1~2(재) 17:15 울감한 소방차 레이 17:30 똑막맨 17:45 뽀롱뽀롱 뽀로로 18:00 생방송 토크! 토크! 하니니~4 19:00 사이언스타 Q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온 개는 없다 20:40 다큐 오늘	21:30 한국기행 <가을엔 노래기행 4부 울고 넘는 백담재> 21:50 과학 다큐 버온드 <해킹, 30초 전> 22:45 다문화 고부열전 <남편만 믿고 기고만장한 며느리 때문에 기죽은 시어머니> 23:35 불랑시니야클럽 24:05 지식채널e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9일 (음 9월 21일 庚子)

<p>子</p> <p>48년생 오랫동안 정성을 다 한다면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60년생 작은 일을 잘 해내야 큰일을 치를 수 있다. 72년생 주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형국이다. 84년생 양보하지 않는다면 상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자. 행운의 숫자 : 50, 47</p>	<p>午</p> <p>42년생 끝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 54년생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66년생 만전을 기한 후에 입하자. 78년생 부단한 노력이 확실한 미래를 담보하는 지경에 이른다. 90년생 객관성에 근거하여 철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82, 52</p>
<p>丑</p> <p>49년생 시비를 명백하게 거두지 않는다면 후환을 초래할 수 있다. 61년생 오히려 상태가 더 바라고 있던 바이기도 하다. 73년생 통래적인 절차에 따르는 것이 이루어질다. 85년생 지나 간 혼적을 잘 살펴보면 힌트를 얻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98, 38</p>	<p>未</p> <p>43년생 객관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라. 55년생 기본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더딜 수밖에 없다. 67년생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이가 생길 수도 있다. 79년생 경쟁자와 동반하는 면모이다. 91년생 개선하지 않으면 손해가 따른다. 행운의 숫자 : 74, 35</p>
<p>寅</p> <p>50년생 답답하더라도 지금은 참자고 기다리고 있어야 할 때다. 62년생 점점 더 효과가 커진다. 74년생 생기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있던 것에 대한 관리가 더 중요하다. 86년생 밤심한다면 공든 탑이 무너질까 두렵다. 행운의 숫자 : 91, 31</p>	<p>申</p> <p>44년생 결과가 집착하지 않아야 성과가 더 커진다. 56년생 돈이 들어오리라. 68년생 빈틈없이 처리한다면 판권을 좌우할 만한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다. 80년생 표면의 현상을 여과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믿으면 곤란하다. 행운의 숫자 : 24, 06</p>
<p>卯</p> <p>51년생 재물을 얻는 길함이 있다. 63년생 막연한 풍문에는 귀 기울일 필요 없다. 75년생 약담 끝은 없어도 덕담 끝은 있으니라. 87년생 사소한 부주의가 구설과 시비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단사에 주의를 기울이자. 행운의 숫자 : 44, 43</p>	<p>酉</p> <p>45년생 구체적이지 않다면 뜬구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할 일이다. 57년생 기존에 성취하여 왔던 바에 보충하여 덧붙일 필요가 있다. 69년생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은 모순이니 명료한 것이 효과적이다. 81년생 간단하게 처리하자. 행운의 숫자 : 41, 48</p>
<p>辰</p> <p>52년생 쉽게 관철 될 수 있는 순조로움이 보인다. 64년생 특별한 이면이 없는 한 흥왕의 기운을 함께 나눌 것이다. 76년생 신속하게 처리하면 상당한 재물을 얻을 수도 있으니라. 88년생 자신의 진기를 알아주는 이가 생긴다. 행운의 숫자 : 54, 80</p>	<p>戌</p> <p>46년생 행간의 의미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58년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후일을 도모하는 데에 일조하리라. 70년생 하찮은 것에서 비롯된 불편함이 보인다. 82년생 정면으로 승부를 내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97, 17</p>
<p>巳</p> <p>53년생 형식적인 것은 다 필요 없으니 실익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무리가 없겠다. 65년생 음양이 교차하다가 일침을 이룬다. 77년생 양운이 떠도니 신중히 처신해야만 할 것이니라. 89년생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4, 68</p>	<p>亥</p> <p>47년생 열심하면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59년생 연쇄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라. 71년생 마음이 있더라도 말로 표현해야 효과를 본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 83년생 착실하게 진행한다면 일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9, 64</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